

어려운 이웃에 도움될 수 있어 기뻐 새로운 희망 찾아 주는 보람 느껴



이 정 규

정우리사이클링(주) 상무이사

요즘같이 생활이 어려울 때는 자신을 챙기는 것만도 힘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에도 아낌없이 나눠 주는 일, 그것을 나눔 봉사라 한다.

재활용 전문업체인 정우리사이클링(주) 이정규 상무이사는 10여년간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도울 뿐이라고 겸연쩍어하는 이정규 상무.

특별한 이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손을 하나 보태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는 추운 겨울이 돌아올수록 추위와 싸워야하는 이웃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좋지 못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봉사를 하는 그의 주업은 폐기물을 재생,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사람이다.

처음 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곳이 그라비아 포장업체로 스스로를 반 포장인이라 말한다. 30년 간 그라비아 가공업체에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 인연을 통해 현재 폐기물 재활용 사업과 인연을 맺게 된다.

폐기물 사업은 그리 주목받는 사업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재생 자원을 만들어내는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 쓰고 버려지는 보잘 것 없는 제품을 모아 재 가공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연료로 만들어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는 홀대 받아오던 이 사업이 이제는 주목받는 신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포장재 재활용업의 어려움에 대해 “일부 회사에서 선별하여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2차로 선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릴때 조금 신경써서 선별작업을 해준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남들이 주목하지 하지 않는 폐기물 처럼 그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는 봉사 활동도 누가 알아 주기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다.

그가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큰 딸과 작은 딸에게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 함께 봉사를 다니다 나눔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봉사하는데 중독이 되었다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이다. 그가 봉사하는 일은 낡은 집을 수리해주고 주변 환경을 살기 좋게 개선해 주는 봉사를 주로 한다. 어떤 때는 아예 주택을 새로 지어주는 일도 한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외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자기의 재능을 나눠 주기 때문에 주택하나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손도 많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주어진 것에서 하나하나 채워가지 주변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실제 이름이 나고 유명한 단체들은 주변의 도움이 많고 지원도 많이 받는다. 거기에 비하면 초라할지 몰라도 앞에서 봉사한다고 하고 뒤에서 다른 일을 벌이는 곳과는 다른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봉사는 돈으로 지원하는 봉사와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 이정규 이사는 이 두가지를 병행하는 사람이다.

몸으로 일하고 부족한 물질을 채워가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작은 딸과 복지관에 가서 가족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저에게 부모님에게 못 다한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작은 딸에게도 효도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라고 말한다.

가족을 만들고 가족의 삶을 지켜주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이 이정규 상무가 하는 일이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제겐 현재의 일도 중요합니다”라는 이 상무는 “재활용 사업은 봉사활동과 비슷합니다. 버려지고 쓸모없는 것을 자원으로 만들어 내듯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 보람된 일”이라 강조한다.

그는 “포장업계에 좀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그동안 몸담았던 그라비아 가공업체들을 위한 봉사라 생각하고 폐자원의 활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한다. 말로 하기 쉬운 봉사를 실천하는 그에게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